

금호터미널 매각가 얼마나

평가기관 3곳 실사 중…장부가 2314억, 롯데 5000억 반영 변수

대한통운과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된 금호터미널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외부 평가기관 3곳에 금호터미널의 자산·기업 가치 평가를 맡기고 이달 말까지 매각 적정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금호터미널과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에 따르면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한통운의 대주주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은 금호터미널의 가치 평가를 산정하기 위해 안전회계법인 등 3곳의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평가기관은 지난 주부터 광주 금호터미널에서 실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1일까지 금호터

미널의 매각 적정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주간사는 금호터미널의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대한통운 매각가격에서 금호터미널을 떼낸 뒤 인수 후 보기업에 본입찰 안내서에서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매각주간사와 대한통운의 대주주 등은 금호터미널과 아스항공, 아시아나항공 개발 등 3개 자회사를 대한통운과 별도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자회사와 사업 연계성이 큰 대한통운의 대주주 아시아나항공이 되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호터미널 가격이 나오면 금호아시아나는 그 가격 안에서 인수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9년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대한통운에 2200억원에 넘겼다. 금호터미널의 가치는 1년 만에 100억원 이상 늘어 지난해 말 현재 장부가는 2314억원이다.

하지만 분리매각을 강하게 반대했던 롯데그룹이 예비입찰에서 금호터미널의 가치를 5000억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들 평가기관이 금호터미널의 매각 적정가격을 얼마로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터미널의 재인수를 강하게 원했고, 매각 층이 금호아시아나 입장을 수용한 이상 금호터미널 가격이 장부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을 팔아야 하는 대우건설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가치를 높여 매각가격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터미널에 대한 적정가치가 나오면 곧바로 대한통운 본입찰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금호터미널 가치평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설불리 판단할 수 없다. 가격이 정해지면 비통은 금호아시아나로 넘어간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분리매각에 반대했던 롯데의 대한통운 본입찰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생체부품·황칠·해조류 지역주력산업 육성

광주 북구의 생체부품, 해남·장흥·완도지역의 황칠, 장흥의 해조류 등 차별화된 지역연고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의 올해 신규 과제로 2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RIS 사업은 산학연 지역발전 주체가 지역연고지원 활용기업

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네트워킹,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제조·가공(10개), 생활소재·디자인(5개), 기계·부품(6개), 기타(1개) 등 분야별로 다양하며 향후 3년 동안 매년 최대 6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는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대를 주관기

관으로 한 광주 북구 고령친화형 생체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전연자원연구원의 해남·장흥·완도지역 황칠소재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 강화, 목포대의 장흥 해조류 자원의 과워 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실 치즈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과 전

지경부, RIS 22개사업 선정

3년간 최대 6억원 자금지원

은 9.1% 증가해 전달의 54.5%에서 증가세를 이어갔고,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구제역 및 이상한파 진정 등으로 감소폭(2월 -7.7%, 3월 -2.3%)이 축소됐다.

4월 중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22.1% 증가한 가운데 광주지역은 감소로 전환(11.5%→7.1%)했고 전남 지역은 큰 폭의 증가세(56.9%→31.8%)를 유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7.5%의 성장세

를 보인 이후 올 1월 12.2%, 2월 16.4% 등 꾸준한 증가세다.

지역별 생산에서 광주는 32.6%, 전남은 9.9%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3월 중 광주·전남의 건축 착공면적

광주 LED 조명 일본 시장 진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일본 LED조명 업체인 동화산업은 26일 진흥회 3층 회의실에서 국내 LED조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광주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 LG이노텍 대표이사(주)는 26일 광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일본의 LED조명 전문업체인 동화산업(주) 표는 약 300만달러 규모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허영호·

최해 국제 LED조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이날 일본 동화산업과 LED조명 공급사업 및 시장 진출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약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하기로 했다.

최근 지진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 사태 여파로 하절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약 100억원 상당의 태양광 활용 EEMS(축전비상발전시스템) 공급 물량 수주를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동화산업은 지난 1918년 설립한 연매출 1조 2000억원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다그룹의 자회사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KT광주마케팅본부(본부장 전경희)는 지난 25일 ‘KT화순지사 광덕점’ 개점식을 갖고 고객들의 민원 접수 및 상담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전남 군 단위 지역으로는 최초로 개점된 KT화순지사 광덕점을 인근 1만여 세대 고객에게 KT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신청, 요금 수납,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네전화국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각종 모임, 동창회 등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김홍태 KT화순지사장은 “화순읍 내 주요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각종 통신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t.com

KT 화순지사 광덕점 개점



광주·전남 경제 성장세 유지

자동차 등 17% 증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성장세를 유지했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2%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7.5%의 성장세

를 보인 이후 올 1월 12.2%, 2월 16.4% 등 꾸준한 증가세다.

지역별 생산에서 광주는 32.6%, 전남은 9.9%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3월 중 광주·전남의 건축 착공면적

‘담합’ 4대 정유사 과징금 4348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일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

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0타경 17940	1 신안군 팔금면 읍리 1146 387㎡	대	15,994,400	일괄매각, 제시와 건물포함. 매각외 제시와 건물포함
	2 동소 1146 95㎡	부지와 주변 일부 3.3㎡	15,994,400	
	3 동소 1156~1 153㎡	답		
2011타경 2327	1 신안군 알태면 달사리 355-6 278㎡	대	48,060,590	일괄매각, 제시와 건물포함
	2 동소 355-6 82.89㎡	제시와 청고 5.2㎡	48,060,590	
2011타경 2532	1 영암군 도포면 원월리 851-1 4호 64.6㎡	단독주택	16,118,600	제시와 청고 등 59㎡
	2 동소 851-1 4호 64.6㎡	답	16,118,600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2011타경 2457	1 목포시 용해동 911 5층 503호 83.57㎡	다세대	90,000,000	일자인있음
	2 동소 2457	답	90,000,000	
【단지/임야/전답】				
2010타경 12037	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161-3 8770㎡ [매각외 비닐하우스있음, 수목(배나무)포함매각]	임야	38,680,000	일괄매각, 제시와 건물포함. 영광군 금정면 월평리 161-2 16114㎡ [매각외 임야, 수목(배나무)포함매각]
	2 목포시 외제인구역 161-2 16114㎡ [매각외 임야, 수목(배나무)포함매각]	전	190,112,000	
2010타경 15425	1 무안군 경현면 현화리 990-4 462㎡	전	17,743,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984-1 1025㎡	전	17,743,000	
2011타경 17957	1 신안군 1470-1 349㎡	대	5,499,000	제작외 비닐하우스포함
	2 동소 1470-1 349㎡	답	2,861,800	
【부지】				
2010타경 16589	1 신안군 압해면 매화리 1489 1250㎡	전	6,62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